

제 4 교시

## 사회탐구 영역(한국지리)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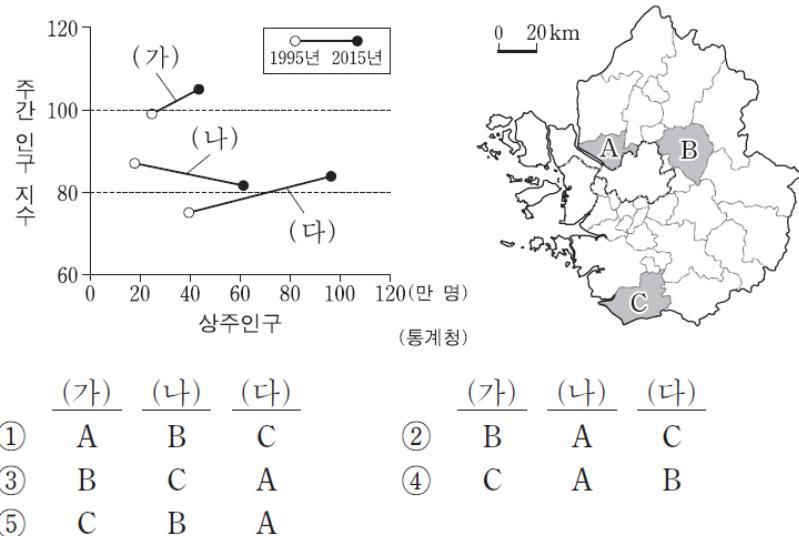
수험 번호

제 [ ] 선택

## 한국지리 대도시권 단원에서

- 신도시 형성 시기에 따른 상주인구 / 주간 인구 지수 변화
- 성남의 변화
- 인구 증가율과 유소년층 비율(부양비) 간 상관관계
- 서울로의 통근·통학 비율과 주간 인구 지수의 차이에 대해 논해보겠다.

- 도시 형성 시기에 따른 상주인구 / 주간 인구 지수 변화
-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2018학년도 대수능 문항으로, 오답률이 60%에 육박했던 문항이다. 세 지역의 상주인구와 주간 인구 지수의 변화가 제시되었다. 2015년 기준 상주인구 100만 명인 (다)를 고양으로 파악하고,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는 (가)를 공업 도시인 평택으로 파악한 뒤 나머지 (나)를 남양주로 파악하면 비교적 쉽게 풀이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강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풀이하고 마무리하는데, 출제자의 진정한 출제 의도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화성, 평택과 같은 공업 도시는 자족 기능이 높으므로 본래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는다. 공업 도시가 아닌 신도시에서의 변화 양상을 파악해야 한다.

신도시 건설 이전에는 어느 지역이든 개발 이전이므로 상주인구는 매우 적고, 통근·통학 양상이 활발하지 않으므로 주간 인구 지수는 100에 수렴한다. 이후 신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하면 상주인구는 폭증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유입되는 인구의 특징이 주로 서울로 통근·통학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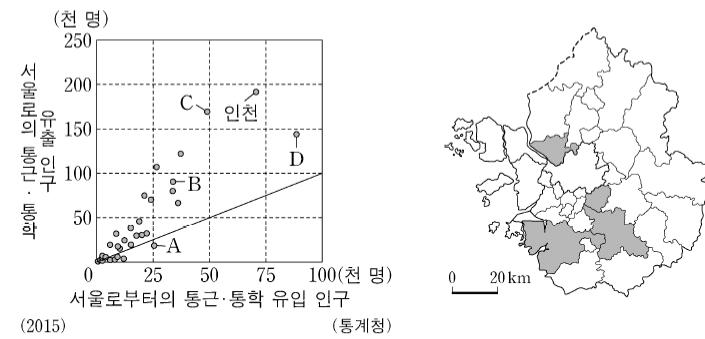
따라서 신도시 건설 이전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매우 하락하게 된다.

신도시가 건설되고 2~30년이 지나면 도시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일자리(자족 기능)가 늘어나며 주간 인구 지수가 상승하게 된다. 그 중 특히 많이 늘어난 케이스가 성남이고, 이 부분을 2번에서 다룰 것이다.

다시 문항 자료로 돌아가서 보면, (다)의 변화를 보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주간 인구 지수가 상승하였다. 따라서 (다)는 1990년대 건설된 1기 신도시가 위치한 고양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나)의 변화를 보면 주간 인구 지수가 하락하였으므로 2000년대에 택지 지구가 개발되어 인구가 증가한 남양주로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이 숨어있는 진정한 출제 의도이다.

## 2. 성남의 변화

- 그래프는 수도권 내에서 서울과 32개 시·군 간의 통근·통학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D는 지도에 표시된 4개 시 중 하나임.)



ㄱ. B와 D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위치해 있다.  
 ㄴ. A는 B보다 공장 용지의 면적이 넓다.  
 ㄷ. D는 C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ㄹ. A~D 모두 서울과의 통근·통학에서 순 유출을 보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성남은 고양과 더불어 1990년대 1기 신도시가 조성되어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2기 신도시인 판교 신도시도 조성되었다. 이 때 고양과는 달리 많은 2010년대부터 IT 기업 등 일자리가 유입되어 자족 기능이 확충되어 2020년 기준 통근·통학 유출 인구보다 통근·통학 유입 인구가 더 많아졌다.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높아졌다는 것(104)이다. 조심해야 할 점은 성남에서 서울로 통근·통학 하는 인구 비율은 높지만, 2010년대부터 타 지역에서 성남으로 통근·통학 유입하는 인구가 매우 증가한 것이다.

위 문항은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항으로 비교적 오래된 문항이지만, 여태 기출 중 유일하게 성남과 타 신도시의 통근·통학 유입·유출량 차이를 물은 문항이다.

## 2 (한국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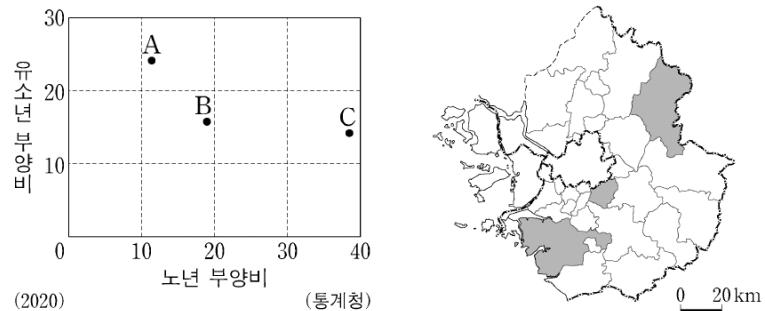
## 사회탐구 영역

2015년 자료이므로 성남이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낮음을 감안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통근·통학 인구 수가 많은 C, D가 고양, 성남 중 하나인데, 상대적으로 서울로부터의 통근·통학 유입 인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D를 성남으로 파악해야 한다.

물론 당시에는 두 지역을 구분하지 못해도 풀이할 수 있게 문항이 설계되었지만, 평가원은 늘 처음 출제할 때는 그렇게 보여주기만 하면서 시그널을 주고 다음번에는 그 부분을 알아야지만 풀이할 수 있게 출제한다. 7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이 부분을 출제하지 않았다. 그게 이번이 될 수도 있다.

### 3. 인구 증가율과 유소년층 비율(부양비) 간 상관관계

5.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는 B보다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 비율이 높다.
- ② A는 C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낮다.
- ③ B는 A보다 성비가 높다.
- ④ C는 A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 ⑤ C는 B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최근 인구 단원을 포함하여 지역 간 유소년층 비율(부양비)을 구분시키는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대도시권 단원에서도 출제되었고, 출제될 수 있다.

기본적 원리는 “최근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는 유소년층 비율(부양비)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에서는 세종이 가장 유소년층 비율(부양비)이 높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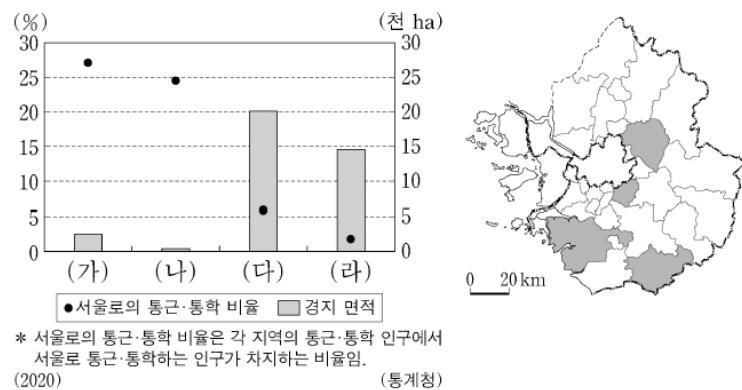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물으면, 특히 경기도 내 대도시권에서 묻게 되면 발달 시기로 접근하면 된다.

위 문항은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항으로,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성남과 2기 신도시가 위치한 화성 중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달하여 인구가 증가 중인 화성을 유소년 부양비가 더 높다고 추론하여 A로 파악해주어야 한다.

화성을 김포, 파주, 하남, 평택, 남양주 등으로 바꿔도 유효하고, 성남을 고양으로 바꿔 출제해도 유효하다.

### 4. 서울로의 통근·통학 비율과 주간 인구 지수의 차이

16.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서울로의 통근·통학 비율과 경지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기>

- ㄱ. (가)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위치한다.
- ㄴ. (나)는 (가)보다 상주인구가 많다.
- ㄷ. (다)는 (나)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
- ㄹ. (라)는 (다)보다 지역 내 주택 유형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서울로의 통근·통학 비율과 주간 인구 지수를 비슷한 매커니즘으로 접근하고는 하는데,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

서울로의 통근·통학 비율은 서울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높고, 주간 인구 지수는 서울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차이점은 서울로의 통근·통학 비율은 예외 없이 서울과의 거리에 비례해서 높아지고 낮아진다는 점이고, 주간 인구 지수는 지역 간의 차이가 있어 예외가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경기도에서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포천으로 약 120이다. 한편, 서울 인접 도시는 서울로의 통근·통학 비율이 높을 것으로 주간 인구 지수가 낮아야 하나 성남은 예외적으로 104이다.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이다.

하지만 서울로의 통근·통학 비율은 서울 인접 도시는 25~30%대를 보이고,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이와 비례해서 떨어진다. 따라서 서울로의 통근·통학 비율이 출제되면 무조건 서울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추론해주면 된다.

위 문항은 2023학년도 대수능 문항으로, (가), (나)는 서울로의 통근·통학 비율이 높으므로 성남과 남양주 중 하나인데, 둘 중 경지 면적이 넓은 (가)를 남양주, (나)를 성남으로 파악하면 된다.

(다), (라)는 서울로의 통근·통학 비율이 3배 가량 차이나므로 서울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화성을 통근·통학 비율이 높은 (다)로 파악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경지 면적이 넓다고 무작정 안성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기본 개념과 원리에 입각한 추론을 해야 한다.